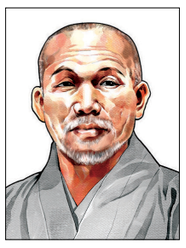
항일 운동가 초월 스님 6월 독립운동가로 선정



용성 ·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사진〉이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독립기념관은 6월 동안 야외 특별기획전시장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백초월 스님의 관련 자료 15점을 전시하며, 초월 스님이 활동한 서울 진관사는 6월 10일 오전 11시 추모재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878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초월 스님은 30대 초반의 나이로 진관사를 비롯 전국 사찰을 돌며 항일이념인 일심교를 전파했으며 1919년 한국민단본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와 독립군에 전달했다.

3 · 1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로 활약한 만해, 용성 스님이 일제에 체포되자 승려독립선언서와 의용승군제를 추진하며 불교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됐다.

초월 스님은 1939년 용산역 '대한독립만세' 격문 작성을 주도하다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도 군자금 모집을 계속하다 다시 붙잡혀 1944년 옥중 순국했다.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서울 진관사 칠성각 벽면에서 스님이 제작한 태극기와 당시 독립신문 등 항일 운동 관련 자료들이 대거 발견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 대광명전 영산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양산 통도사 영산전과 대광명전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26호 '양산 통도사 영산전(梁山 通度寺 靈山殿)'은 1714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의 건물로, 통도사 하로전(下爐殿)의 중심건물이다. 상부 가구와 공포 형식은 18세기 초 불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물 제1827호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梁山 通度寺 大光明殿)'은 1758년에 중건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로, 통도사 중로전(中爐殿)의 중심 불전이다. 부재의 마름질과 조각 수법이 우수한 불전으로 평면 구성과 공포 형식, 창호 등에서 18세기 중반의 다포계 불전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진영논리 타파할 '시민위원회' 구성하겠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10일 회향… '야단법석'으로 전환

전체 이동거리 12,000km. 도보로 이동한 거리 1000k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이동한 거리이다. 지난 3월 2일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고제로 시작된 100일 순례가 6월 10일 조계사에서 회향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순례단은 상근 순례단원 20명을 비롯해 지역 참여 단원 등 평균 50여 명으로 구성돼 제주, 부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강원, 인천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전국에는 수많은 갈등 현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순례단은 30회의 이야기마당, 10여 곳에서의 합동위령제, 5곳에서의 국민통합문화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5월5~6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생명평화 세상을 염원하는 500배 절 명상과 기도회'를 열고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진실규명과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사람과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을 발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의 큰 의미는 사회적 갈등 현장에 있는 양 진영 모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막연했던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고, '화쟁'의 씨앗이었다는 게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장 도법 스님의 주장이다.

도법 스님은 순례 회향에 앞서 6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군산 미군기지, 현대자동차 노조 등 사회갈등의 현장에서 양측 모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하는 열망이 있었다"면서 "소수이기는 했지만 지역사회 안에 뜻 있는 인사들이 '화쟁'이라는 화두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100일 순례를 한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김민해 목사는 순례의 성과가 단순히 가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해 목사는 "10~60대가 동거동락하면서 100일을 함께 걸었고, 갈등 현장을 일일이 확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전남 순천에서 국가권력의 희생자 유족들이 군 · 경과 함께 있는 현충탑을 찾아 위령제를 진행했다. 행사를 마치고 유족들 모두 눈물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순례단이 전국에 뿌린 화쟁의 씨앗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국 갈등 현장을 누비며, 화쟁과 회통의 정신을 전한 순례였지만 한계와 과제도 존재한다. 지역마다 하루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순례 시간으로 인해 화쟁 정신의 의미를

지난 3월 3일 제주 법경사를 출발해 전국을 순례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6월 10일 회향한다. 이후에는 '대한민국 야단법석'으로 전환돼 사회 통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1000km 도보순례 갈등 현장 찾아
이야기마당·좌우합동위령제 등 진행
"100일 순례하며 '화쟁'의 씨앗 파종"
'화쟁' 공감했지만 보편성에는 한계

깊이 있고, 폭 넓게 나누지 못했고, 지역민들의 인식 차가 커 보편성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순례단의 자체 평가다.

또한 보수 단체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일부 진보단체에게는 '화쟁'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도법 스님은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가졌던 바람과 기대보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순례추진단의 자체 역량이 부족하고 주도했던 불교계의 문제의식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쟁의 정신을 곳곳에 전했다. 이에 대한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순례단은 100일 순례의 회향과 동시에 진영 논리를 넘어서 시민의 손으로 갈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한민국 야단법석'을 1000일 동안 진행한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야단법석 시민위원회'도 구성된다.

시민위원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염수정 가톨릭 서울대교구 추기경,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황도국 원불교 서울대교구장 등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안철수 ·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천오선 정의대 대표 등 보수 · 진보 진영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법 스님은 "진영 논리의 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국민 통합의 길은 요원하다"면서 "진영의 벽을 허물고 나온 상식적인 진실의 민심이 나라의 중심으로 우뚝 빛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6월 1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100일 순례 회향 및 대한민국 야단법석 선언식'을 개최했으며, 6월 9일 오후 7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사회로 '화쟁콘서트'를 열어 순례단의 그간의 기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생과 공존이 미래 세계의 대안"

'오래된 미래' 호지 박사 조계종복지재단 초청 강연

법정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최재천 국회의원 등 명사가 추천한 책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의 강연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의 주최로 열렸다. 그가 저술한 〈오래된 미래〉는 개발과 파괴를 일삼는 산업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도 북부 라다크의 전통사회 속 생태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세계적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왔다.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속가능한 조화로운 개발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는 성장한계에 부딪힌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2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호지 박사는 개발로 인해 라다크에서 빈곤과 불평등, 마을 공동체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경제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화의 획일화,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는 세계화의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 박사는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속가능한 조화로운 개발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간 근본 가치 되살리는
공존 · 관계 커뮤니티 강조

대안으로 지역화를 제시하며 거대 독점기업이 아닌 더 작은 기업을 지향, 경제의 기본단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식량에서부터 시작하는 현대적 자급자족은 식량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생태적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적 유대주의로 인간성의 회복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탐욕으로 인해 세계가 병들어 있다고 진단한 그는 "음식, 교육, 에너지 문제 등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병폐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은 사회 구성원간 이해를 바탕으로 연대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불교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내재한 자비와 사랑을 믿는다면 이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 커뮤니티를 되살리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의 가치와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날 강연은 1부 호지 박사가 직접 제작한 '행복의 경제학' 다큐멘터리 강연을 시작으로 2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호지 박사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 · 세계적인 여성 생태환경운동가로 반세계화 · 반개발 · 탈중심화를 위한 국제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비 새는 사찰서 모은 淨財, "인재양성 위해"

원명 스님, 평생 보시금 1억 원 동국대에 기부

대구의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 고령의 비구니 스님이 평생을 모은 돈을 동국대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구 길상선원 주지 원명 스님〈사진〉. 스님은 5월 30일 동국대 대외협력본부에 1억원 수표를 건넸다.

원명 스님이 기부한 1억 원은 스님이 평소 신도들이 준 약값과 용돈 등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것으로, 스님은 하루 세 끼 외에는 스스로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이 기거하는 대구 길상선원은 1979년 문을 연 도심 작은사찰로 15명 내외의 신도가 있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사찰 곳곳에도 빗물이 새는 등 열악하지만 스님은 인재양성을 위해 큰 돈을 선뜻 기부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 당연히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하는데 신도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는 권선이 된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평소 불교계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동국대가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희심을 느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명 스님은 2004년에도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1000여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원명 스님은 대표적인 비구니 선승으로 꼽히는 장일 스님을 은사로 20대에 출가해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의 은사인 석암 스님에게 비구니로서 처음으로 수계를 받았다.

원명 스님은 "건학108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정련 스님과 김희옥 총장의 원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동국대가 불교계 대표 대학으로 서울대 · 연 · 고대와 겨룰 만큼 발전해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월호스님의 명쾌한 게송 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삶은 환타지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송', '애착을 버리는 게송', '화를 다스리는 게송', '행복을 부르는 게송', '마음을 보는 게송' 등 주제별 게송에 얽힌 스토리텔링, 현대적 교훈이 어우러져 재미와 의미를 만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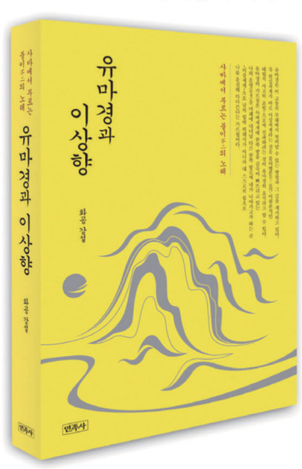
■ 월호 스님 지음 | 변형 신국판 328쪽 | 13,500원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

"꽃은 피었다 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납니다. 이른바 삶은 환타지(幻)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진 환타지 영화로 꽃피울 것인가, 우울하고 기분 나쁜 공포 영화로 만들 것인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다 내 작품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팔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잡다한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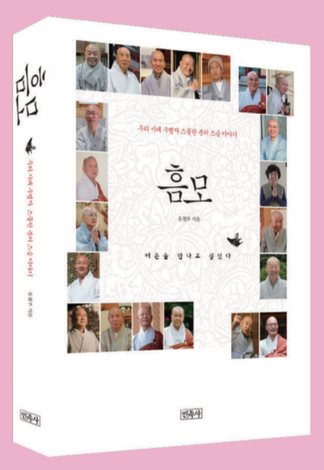
■ 화공 강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대한민국호를 타고 함께 업을 짓고 사는 우리들…

이즈음 세월호 참사로 혼돈과 좌절과 아픔 속에 헤매는 우리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이 땅을 이상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책.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 불교는 물론이고 동서양 철학을 꿰뚫은 화공 스님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스승 이야기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흠모

금생은 안 태어났다 생각하고 공부하다 죽어라, 세상의 인재가 되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 바치라는 스승들…

"머리만 깎았다고 중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중은 평생 정진하다가 논두렁 베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아이가. 중노릇이 쉬운 기는 아니다."
–성철 스님께서 갓 출가한 원택 스님에게 해 주신 말씀

■ 유철주 지음 | 변형 신국판 372쪽 | 15,000원

"어른이 없는 시대에 바치는 진정한 어른 이야기"

우리 시대 스물 한 명의 수행자가 인생길을 열어준 은사스님에 대한 회고와 마음 깊은 그리움을 전하는 책 〈흠모〉. 흠모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제자는 어느새 중생의 흠모를 받는 또 다른 스승이 된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